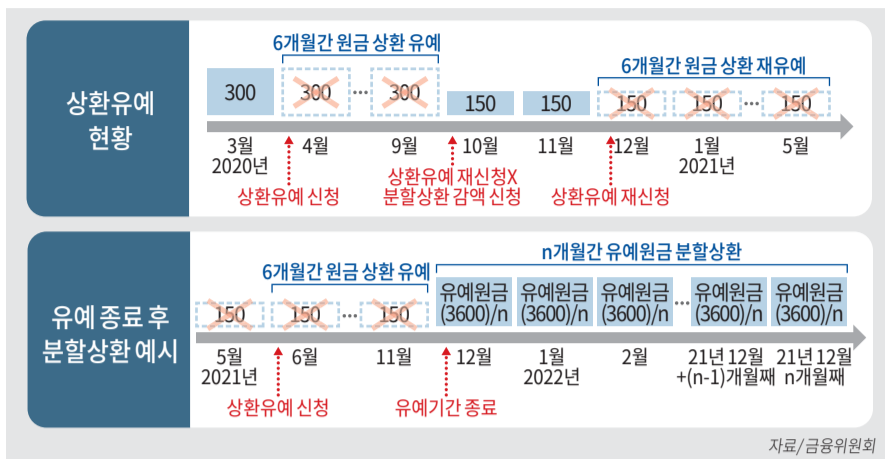


# ‘코로나 대출’ 이자유예 연장 가닥... ‘깜깜이 부실’ 우려

대출 1.3만건, 대출규모 4.7조원  
내달 말 종료 예정... 재연장 무계  
대출 상환여력 가능할 지표 없어  
시중은행, 부담·불안감 확산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  
자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재확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지원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을 관리할 최소한의 지표조차 없기 때문  
이다.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  
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깜깜이 부  
실’에 대한 우려는 더 큰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만기연장은 35만건, 116  
조원 규모다. 분할상환 만기연장은 5만



5000건, 8조5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대출원금으로  
보면 4조7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밀  
린 이자는 1570억원 안팎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  
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지난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  
장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조  
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 중  
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  
실화 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  
으면서 금융지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

는 점을 강조했고, 정치권에서도 재차  
압박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중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  
고 있다”며 “은행권과 차주의 상환부담  
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  
으로 시행 중인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  
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  
장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검토  
하고 있고,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금융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지 않  
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가능하  
다. 반면 이자상환 유예 대출의 경우 지  
금 시점에서는 상환 여력을 가능할 지  
표가 전혀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만이라  
도 종료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자상  
환을 유예해 주면 육식을 가리지 못한  
다는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  
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 정도 되기 때문  
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계약해지·실적악화...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설 연휴 전날 마감 후 160건 공시  
기업 악재 담은 공시도 올라와  
금융위 “공시의무 위반 제재”

설 연휴 하루 전날 증시가 폐장한 이  
후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의 계약 해지나 기업  
실적 악화 등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도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  
ND)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 마감 후 코  
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한 전체  
공시 건수는 약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기순손실, 영업손실 등 실적  
과 관련된 내용이나 계약 해지 등 기업  
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올라온 것  
으로 확인됐다.

먼저 실적과 관련된 공시가 다수 눈  
에 띄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지난해 590억원의  
당기순손실, 6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  
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일부 파이  
프라인의 2021년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 및 기타 전임상 단  
계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  
한 비용 등 증가에 따른 영업손실,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버추얼텍은 지난해 49억원의 당기순  
손실, 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증권사 객장 모습. /뉴시스

공시했다. 회사는 종속회사의 신규사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증  
가했다는 설명이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83억원의 영업손  
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대손상각  
비 증가에 따른 영업적자 확대라고 전  
했다. 세노텍은 지난해 66억원의 당기  
순손실, 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해 52억  
원의 당기순손실, 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연결 매  
각 대상 법인 매각으로 인한 매출액 감  
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큐브엔컴퍼니

는 지난해 38억원의 당기순손실, 3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  
다. 회사는 영업 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  
소와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당기순손  
실 감소가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  
이라는 설명이다.

우정바이오는 지난해 106억원의 당  
기순손실, 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됐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코  
로나19로 인한 매출원가 증가와 매출채권  
에 대한 대손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 원  
인이 됐다고 말했다.

공급계약해지와 유상증자 철회 공시  
도 올라왔다. 유테크는 212억원 규모  
의 마스크 공급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  
했다. 한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납품기

한 연가돼 해당 상품의 중국 수급 상황  
이 해소되면서 계약 상대방이 발주서  
취소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레드로버  
는 4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아이엠이엔이는 장 마감 후 인수자  
측 요청으로 전환사채(CB) 납입일을 연  
기한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납  
입일은 당초 2월 10일까지였으나 26일  
로 미뤘다.

이 밖에 판타지오는 경영권 변경 등  
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을 예고했다. 이  
회사 2대 주주인 지엔씨파트너스는 보  
유한 500만주(6.88%)를 아티스트코스  
메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  
수도 대금은 106억원이다. 아티스트코  
스메틱이 오는 17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최대주주  
로 올라서게 된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  
공시가 올라온 이날 박재홍 판타지오 대  
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을 사  
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반복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별점이나 제  
재금 부과 수준에 그쳐 안일한 인식  
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단순 실수로 인  
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고의  
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반복 등은  
엄중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염재민 기자 yji208@



### 테슬라 ‘모델 Y’ 출시 보조금 100% 지원

트림별 5999만원부터

테슬라가 전기차 지원금을 받  
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Y(사진)  
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주문 접  
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델Y는 중형 전기 SUV로,  
국내에는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 퍼포먼스 등 3개 트림을  
출시된다.

주행 가능거리는 최대 511km  
로, 5인승이지만 추후 7인승 구  
성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내  
부에는 15인치 터치스크린을 장  
착했고, 확장형 완전 글래스 루  
프로 개방감도 높였다.

가격은 트림별로 5999만원,  
6999만원, 7999만원에 책정됐  
다.

아울러 이날 테슬라는 2021년  
모델3도 함께 내놨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5479만원, 롱레  
인지가 5999만원, 퍼포먼스가  
7479만원부터 시작한다.

이같은 가격은 정부가 올해부  
터 전기차 보조금을 6000만원 미  
만에만 전액 지원기로 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가 전기차  
지원금을 ‘썩쓸이’한다는 비판에  
대응책을 내놨지만, 테슬라가 가  
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이를 피해  
간 것.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지원금을 6000만~9000만원 전기  
차에는 50%, 9000만원을 넘는 전  
기차에는 미지원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조선업계, 새해부터 잇단 ‘수주 낭보’

1월 한달간 전년비 12배 증가

국내 조선업계가 새해 수주 물량을  
대거 확보하며 부활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1월 한달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배나 증가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증  
가와 환경의식 강화 등으로 글로벌 선

박 발주가 큰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조선업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  
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 영국 조선해운시황분석 업체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세계  
선박 발주량은 17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66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  
난해 1월 149만CGT에 비해 14% 늘긴  
했지만 2019년 1월 295만CGT에 못미

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 조선사가 91만CGT  
(20척·점유율 54%)를 수주하며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연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한 테이머 수주 행렬을 지속  
하고 있다. 이는 수주량이 7만CGT  
(2척)에 그쳤던 지난해 1월에 견줘서도  
달라진 모습이다.

국내 조선사는 지난달 발주된 ▲1만  
2000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  
너 1개)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8척 ▲  
14만m³ 이상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초대형 유조선(VLCC) 2  
척 등을 모두 수주하며 주력 선종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했다

특히 선박 발주량은 2월에도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  
난 8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들과 4만  
m³ 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운반  
선 2척과 4만톤급 석유화학제품(PC)  
운반선 1척 등 총 1520억원에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